



KOWIN DC 회장 인사말



친애하는 KOWIN 회원 여러분과 친구 여러분께

지난 봄 뉴스레터가 나간 이후 여행, 강의, 연구, 출판과 여러 가지 공익 활동으로 여러분이 모두 바빴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올해 제3차 KOWIN DC 가

을 모임은 최근의 업적과 또 앞으로 할 일들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도록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하였던 바, 여러분이 즐거워 하시고 서로가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 보다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흐뭇합니다.

저는 회장 인사 겸 최근에 감명 깊게 들었던 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의 연설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였습니다. 이 중한 분은 변호사인 동시 최고로 명성 있는 작가 대리인인 Gail Ross씨고, 또 한 분은 유서 깊은 여자대학 Barnard College 총장 Debora L. Spar이었는데, Ross씨는 Cosmos Club에서 강연할 때 '성공'을 목표로 하면 실패하기십상이라고 했습니다. Spar 총장은 Carnegie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강연하며, 요새 직업 여성들이 모두 'superwoman'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데 이것도 실패를 가져오는 직접요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에게서 상통하는 점으로 중요한 것은 '선택'과 '관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들은 직장인, 남편, 아버지, 친지, 동료 등으로서 무엇이나 완벽한 'superman'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데, 왜 여성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않으면 패자라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의 능력과 성향에 걸맞은 방향을 선택하여 그를 향하여 일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당장 결과가 원하던 바와 차이가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계속 발

전해 나가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이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회와 진리를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공헌을 할 수 있으면 성취감을 느끼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 KOWIN DC 회장으로서 저희 모임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새로운 탐험을 하듯 서로에게 배우고, 누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을 기뻐하며 칭찬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진실한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위엄과 존경은 남에게 요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룩하여 남이 자진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저희들이 다 비슷한 믿음을 가진 멋있는 여성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는 KOWIN DC 회원이 된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회장 김영기 올림

In this Issue...

- 회장 인사말
- 제4회 KOWINNER 비엔나 국제 컨벤션
- 2013 KOWIN 동부지역 컨퍼런스
- 제2차 KOWIN 정기회의
- 2013 KOWIN 대전 국제 컨벤션
- 제3차 정기회의
- 회원 소식
- KOWIN DC 지부 임원진 및 위원회

| | |
|-------|----------------------|
| 발행인 | 김영기 KOWIN DC 회장 |
| 편집장 | 신수경, 박숙자 출판위원회 공동위원장 |
| 교열편집인 | 강윤경 |
| 편집 보조 | 정강은 KOWIN 펠로우 |



제4회 KOWINNER 비엔나 국제컨벤션

2013년 5월 24일~26일



20개국을 대표한 약 90 여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4회 코위너 컨벤션에 참석했다. 컨벤션 주제는 ‘도약: 문화예술을 넘어서 사회복지로’였다. 컨벤션 첫 날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리셉션과 미술 전람회가 비엔나 한국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의 저녁 식사 중에는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비엔나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한인학생들의 음악 경연이 벌어져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또한 컨벤션 기간 동안 어렵고 소외된 한민족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 (silent auction)가 행해졌다. 판매되었던 물품들은 참석자들이 먼 여행길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져와 기증한 것들이었다.

KOWIN DC 에서는 남명호, 신수경, 이명자, 주다이 리 알로웨이, 그리고 홍성자씨가 참석했다. KOWIN DC 멤버들의 활약으로 2013년 비엔나 컨벤션은 더욱 더 빛났다. 신수경씨는 세미나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였고, 남명호씨는 세미나 기간 동안 진행을 맡았으며, 이 주다이 씨가 사회 지도자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또한 남명호와 신수경씨는 특별 주제로 따로 열린 토론타 시간에 토론 사회자로 활약했다. 남명호씨는 사회복지를 주제로, 신수경씨는 차세대를 주제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KOWIN DC 멤버들은 여러 나라에서 모인 참석자들과 우정을 나누며 미국대표로 참석한 다른 도시의 코윈 멤버들

과도 함께 탤런트쇼에도 동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코위너 재단에서 마련해준 아름다운 비엔나 도시 관광도 모두 함께 즐겼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사무국과 비엔나에 있는 코윈 멤버들의 열정과 노고로 비엔나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세계 여러 나라 여성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는 물론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기금도 마련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 다음 제5회 코위너 컨벤션은 2015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KOWIN DC 멤버께서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 KOWIN 동부지역 컨퍼런스

2013년 6월 1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의 2013년 미 동부지역 컨퍼런스가 6월 1일 뉴욕시 맨해튼 클럽101에서 열렸다. ‘능력을 펼쳐라-지평을 넓히면서’ 라는 주제의 이날 컨퍼런스에는 2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참석했다. DC챕터에서는 남명호, 원헬렌, 신영희씨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와 2세 17명이 강사로 나서 사명감과 직업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윤경, 탤런트 에이지 기업의 창업자겸 사장과 소설가 겸 콜롬비아대학 작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옥씨가 기조연설을 했고, 4가지로 나뉘어진 토론에서 연설자들은



‘능력을 펼쳐라’라는 컨퍼런스 주제에 따라 다양한 안목과 재치로 관중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2년마다 갖게 되는 미 동부지역 컨퍼런스는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인지도자들을 통해 또 다른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도전과 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다. 2013 코윈 뉴욕지회가 이끈 이날 컨퍼런스는 맨해튼에 있는 반주식당에서의 칵테일 파티와 함께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

제2차 정기회의

2013년 6월 15일



제2차 정기회의가 6월 15일 킹조지에 위치한 임유숙씨의 별장에서 열렸다.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제1차 정기회의 이후의 행사들(1. 자선음악회, 2. KOWINNER 컨벤션, 3. KOWIN 동부지역 컨퍼런스)과 2013년 상반기 재정예에 대해 담당자들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한국 대전에서 열릴 KOWIN 국제 컨벤션 등 앞으로 다가올 행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한 지난 1년간 펠로우로서 수고한 원수지양에게 수료증 수여식이 있었고, 새 펠로우인 정강은양을 다같이 환영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3년간 회장으로 최선을 다한 남명호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김영기 교수가 멋진 취임연설과 함께 KOWIN DC를 이끌 새 회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킹조지의 별장에서 열

린 만큼, 회원들은 리트리트를 온 듯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3 KOWIN 대전 국제컨벤션

2013년 8월 27일~ 30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3년 제13회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 워크’에 워싱턴DC 지부에서 신수경, 남명호, 이정실, 이성희, 김영주 등 다섯 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한민족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성 컨벤션 센터와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는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세계에서 500여명의 전문직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여성가족부와 대전 광역시, 그리고 세계 한민족여성 재단인 코위너(Kowinner), 매일 경제 신문 주관과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명사강연, 관심주제별, 그리고 활동 분야별 네트워킹,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특별 세션, 지역문화 탐방, 연회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맞이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던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에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좌우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신수경 DC 수석부회장은 ‘창조 경제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여성의 역할’이라는 관심분야별토론에서 리더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활동 분야별 네트워킹에서는 좌장으로서 ‘무역, 관광’에 대한 토론을 주관하였다.



또한, 관심주제별 네트워킹에서, '문화 경쟁력이 곧 21세기 대한민국의 힘이다'라는 주제로 이정실씨가 리더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남명호씨가 토론을 주관하였다. 3박4일에 걸친 컨퍼런스인 만큼 종합 과학센터, 의료단지, 대전 시립미술관, 세종시, 공주 무령왕릉 방문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김영주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였던 '글로벌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한민족 여성의 역할'은 KOWIN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능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평등과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OWIN 여성들은 정말 한국의 자랑스런 여성들입니다!

이정실

컨퍼런스의 특별 세션으로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WCCW)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저이기에, 본 세션이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김준기 영화감독이 위안부에 대한 영상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KOWIN이 함께 이러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만큼 앞으로 DC에서도 KOWIN과 정대위의 협력 또한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8월 말 무더위 때문에 몸은 힘들었지만, 컨퍼런스에 참석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훌륭한 여성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3차 정기회의

2013년 9월 29일



제3차 정기회의가 맥클린에 위치한 김영기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회장의 간단한 환영사에 이어, 6월 제2차 정기회의 이후 있었던 각종 KOWIN 행사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앞으로 있을 주요 행사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11월 16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될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세미나에 대한 남명호·박미경 세미나 공동 위원장의 발표는 올해에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12월 7일 워싱턴DC의 유서 깊은 '코스모스 클럽'에서 열릴 연말 갈라에 대한 함은선 연회위원장의 소개는 우아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저녁을 상상하게 하여, 회원들의 마음을 벌써 설레게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특별 손님들이 함께 했다. 워싱턴에 최근 도착한 주미대사 부인 이선화 여사, 윤금진 국제교류재단 워싱턴사무소소장, 이진숙 MBC 방송 워싱턴지사장과 워싱턴 방문 중인 오은영 한미 사이버박물관장이 함께 했다. 손님을 포함한 33명의 회원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2013 남은 행사 일정

11월 16일 (토)

제4회 KOWIN 리더십 세미나

12월 7일 (토)

2013 갈라



회원 소식

쥬다이 리 알로웨이



“KOWIN 회원 쥬다이, 한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미혼모와 입양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다”

제4회 코위너 비엔나 국제컨벤션에 참석하기도 한 쥬다이 씨는 컨벤션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도착하

자마자 국제한인입양인서비스(InKAS)의 연례 여름 캠프에 초대되어 세계 9개국에서 온 40명의 한인 입양인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로 다음날 그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교육 정책을 비롯해 미혼모 문제, 입양아 문제에 대해 논의를 주고 받았다.

곽 수



곽 수 화가는 올해 ‘치유의 말씀(2013)’ 이란 책을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출간했다.

신영희



워싱턴DC 아메리칸대학교의 신영희 교수가 8월 26~29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그는 ‘아시아 언어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연설 주제로 강연하였다. 신영희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서울)에서 2013-14 초빙교수로 있으며 성대 영문과 번역 및 TESOL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남명호



<첫째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남명호씨>

남명호 KOWIN DC 전 회장이 제6기 미국 동부지역 담당관으로 임명됐다. 한국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에 의해 임명된 남명호 전 회장은 2015년 8월 27일까지 동부지역 담당관으로서 활동한다.



KOWIN DC 출신에서 지역관이 임명되기는 2001년 DC 지부가 탄생한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지역관은 뉴욕, 시카고 지부에서만 임명돼 왔다.

지역관의 임무는 미국 5개 지부의 활동을 한국의 여성가족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또 5개 지부간 네트워킹을 장려하고, 한국 여성가족부와의 관계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영기

김영기 KOWIN DC회장이 두 개의 논문을 출판했다.

(1) "Quest for Identity: Korea's Language and Culture on the World Stage," a Festschrift for Homin Sohn, 2013,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Pp. 286-298;

(2)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in 15th-Century Korean: Alay-a (·) Revisited," in Bjarke Frellesvig and Peter Sells (eds.), Japanese/Korean Linguistics, Vol. 2. 2013. Stanford: CSLI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Pp. 131-150.



김영기 교수는 6월 5일 중국의 난징대학교에서 "Current Status of Korean Linguistics and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6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을 맞아 직접 쓴 시 'I Remember' 를 식전행사에서 낭송했다. 본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7000명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 박미옥



김영기 교수와 박미옥 교수가 함께 지난 5월 3일 제2회 한국어 지도자를 위한 직업 개발 세미나인 'Teaching Business Korean in the 21st Century'를 마련했다. 조지 워싱턴대의 비즈니스 한국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주미 대사관의 김기환 경제공사, 선우찬호(앤드류) 변호사 (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 LLP), 안창호 회장(Rexahn Pharmaceuticals, Inc), 윤종원 IMF 아시아태평양 디렉터 등을 연사로 초대했다.

(<http://atthecenterofitall.business.gwu.edu/2013/05/21/ciber-hosts-business-korean-seminar/>).



2013 KOWIN DC 임원진 및 위원회

상임 위원회(Executive Board)

| | |
|----------|--|
| 회 장 | (김영기) Young-Key Kim-Renaud |
| 자문위원회 | (김광자) Christine Choi Suzanne Kim Doud Galli" (박숙자) Sukza Park Hwangbo (함은선) Sami Lauri (이정희) Jung Hee Lee (남명화) Lucy Myong Ho Nam (손목자) Kim Sohn (신수경) Sue-Kyong Shin Vittas Grace Han Wolf (원헬렌) Helen Won |
| 수석 부회장 | (신수경) Sue-Kyong Shin Vittas |
| 부회장 | (함은선) Sami Lauri (이정희) Jung Hee Lee |
| 사무총장 | (원헬렌) Helen Won |
| 서기 | (박미옥) Miok Pak |
| 재무 | (이정희) Jung Hee Lee (김영주) Adela Kim |
| 감사 | Sue Pender |
| 펠로우/웹마스터 | (정강은) Kang-Eun Jeong Olson |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ttees)

| | |
|----------|---|
| 출판/PR | (신수경) Sue-Kyong Shin Vittas (박숙자) Sukza Park Hwangbo (김한나) Hannah Y Kim (신영희) Younghee Jamie Sheen (강윤경) Yunkyoung Kang |
| 회칙 | (박숙자) Sukza Park Hwangbo (기신연) Sinyeon Kee |
| 멤버십 | (이정희) Jung Hee Lee (원헬렌) Helen Won (임유숙) You Sook Lund |
| 모금활동 | Suzanne Kim Doud Galli (김광자) Christine Choi (이성희) Sung Hee Rhee Anne Choe Jenet Ahn Grace Han Wolf |
| IT/ 페이스북 | Hia Kim Suzanne Kim Doud Galli |
| 연회 | (함은선) Sami Lauri Jenet Ahn |
| 세미나 | (남명호) Lucy Myong Ho Nam (박미경) Melissa Park (신영희) Younghee Jamie Sheen (이정실) Jungsil Lee Grace Han Wolf |
| 멘토링 | (김한나) Hannah Y Kim Balbina Hwang |
| 프로그램 | (심명자) Myung Ja Shim Lee (이성희) Sung Hee Rhee |